

<2015.10.01.>

全羅日報

2015년 10월 01일 목요일 014면 사람

# 고창 선운산에 팔색조가 산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지정보호  
도내에선 최초로 모습 드러내  
번식 개체 여부 추후 정밀조사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에 천연기념물인 팔색조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팔색조는 멸종위기보호야생종으로 문화재청은 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동부 및 남부 아시아지역, 한국과 일본에 번식하고 있는 작은 새로 알려진 팔색조는 몸길이가 18cm 이며 무지개와 같은 7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발견된 팔색조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머리 정수리는 갈색이고 그 아래 양

옆으로 노란색과 검은색 띠가 곱고, 목 댕기는 흰색, 등과 어깨 깃은 녹색, 허리 위 꼬리덮깃은 맑은 남빛, 배의 중앙과 아래 꼬리덮깃은 진홍색이며, 꼬리는 흑 녹색이고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황갈색이다.

주로 제주도나 거제도, 완도 해안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무등산국립공원에서도 발견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초 발견자인 임동욱 호남대 교수(한국 환경생태학회장)는 "이번에 팔색조가 발견된 선운산이 가을철 동남아로 이동하는 중간 기착지인지 아니면 선운산 동백 숲에서 번식한 개체인지는 내년 여름에 정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